

與 매카시즘·野 단식... 총선 출마 예정자 '난감'

여당, 오염수·홍범도 '혼란'
야당, 단식 동참 여부 '고민'
대형 이슈에 전망도 불투명

“당 대표가 며칠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단식을 해야 하나요?”

최근 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최대 화두는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동조 단식·삭발·시위를 해야 하는지 여부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 대표의 의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당 대표 단식에 따라 몸가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현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대표 행보에 발을 맞추기도 어려워 입지자들의 머릿속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상황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연일 계속되는 대통령실발 '매카시즘 행보'에 대응할 수 있는 없고,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칠 수 없어 '홍범도 장군 논란' 등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총선 출마예정자들도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일본 원자력 오염수 문제와 홍범도 장군 홍상 이등 핵심 이슈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여야가 당 안팎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내년 총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출마 예정자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치권이 잇단 대형 이슈에 매몰돼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총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 별 당내 갈등도 깊어지면서 내년 총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앞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를 연다. 민주당은 최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집중 동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 행사는 광주 차례로 당 지도부와 이 지역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일 현재까지 이 행사에 참석을 약속한 인원이 과거 유사한 행사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한 지역위원회는 참석자를 모집한 결과, 관공버스 한 대를 채우지 못해 인근의 지역위원회와 차량을 함께 이용하기로 했고, 다른 지역위원회는 지역 행사를 이유로 아예 이날 국회 행사는 불참한다. 특히 광주지역 시·구 의원들의 불참도 눈에 띄게 많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당 대표의 장기 단식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이례적으로 참석률이 높지만 당 내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광주지역 총선 출마예정자 중 상당수는 이미 지역에서 자



가을 하늘 아래 커지는 '가을야구'의 꿈

휴일인 10일 오후 1만4000여명의 관중들이 관람석을 채운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KIA는 9~10일, 주말 더블헤더 포함 LG트윈스와 3게임에서 연승을 거뒀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적으로 삭발을 하거나 동조 단식을 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에 따라 '이재명의 당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공천을 못할 것”, “대표직을 내려놓아도 이 대표와 이 대표계가 공천을 할 것”이라는 엇갈린 예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발 등의 불’은 국민의힘도 뜨겁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연일 매카시즘을 방불케하는 강경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수도권에 민심 변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야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40%의 유권자의 표심이 총선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한 쪽의 압도적인 승리는 힘들고, 국민의힘의 과반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승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최근 현안 이슈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진행된 수산물 나눔 행사와 관련한 국회의원이 “이 대표는 들어서 고등어를 드시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비난이 일자 바로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각종 설

도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애초 3~4명까지 거론됐던 비례대표의 수도 ‘정율성 논란’ 등으로 소폭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강경 발언에 동조한 일부 지역 인사들이 자신의 비례대표 낙점 가능성을 외부에 알려 중앙당이 수습에 나서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23억달러 지원”

내년 3억불·2025년 이후 20억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2024년 3억달러,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정오쯤에 20분간 회담했다고 대통령실이 사후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지난 6개월 사이에 6회째 만나게 돼 기쁘고 반갑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야구보다 재밌다

YouTube
광주일보



최형우

김도영

양현종

- ▶2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의료봉사단 방문
- ▶18면 KIA, 뜨거운 타격으로 3연승 질주
- ▶22면 끝나지 않은 전쟁 - 빨치산의 비극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의당 전남 함께발전 대한민족!

JEONNAM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10.13.~10.19.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11.3.~11.8.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JNSAO, 문화체육관광부, KSPC